

한국체대, '유토피아'를 꿈꾸며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가 쓴 소설 제목으로 이상향을 뜻하는 대명사. 그리스어 ‘ou(없다)’와 ‘topos(장소)’를 합쳐 만든 단어로 가장 이상적인 나라이자 그 어디에도 없는 장소를 뜻하는 용어이다.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쓴 지 500여 년이 지났다. 소설 속 이야기일 뿐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는 많은 부분에서 《유토피아》가 실현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상향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이자 기사를 기획한 이유이다.

“동기, 선배님과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놀고 싶어요.”

정혜송 학우(특수체육교육 21)의 로망은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노는 것이다. 정혜송 학우는 그의 로망으로 열람실 이용 시간 연장을 쫓았다. “전 새벽에 공부하는 편인데 학교 자체가 10시에 문을 닫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 12시까지만 열어주니까 따로 24시 카페로 가서 공부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절반에도 들지 못한 한국체대
현재 천마 제2열람실은 09:00~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51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열람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그러나 51개 중 대학에 열람실이 없는 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41개 학교 중 21개 학교가 24시간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 결국 51.22%의 대학이 24시간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육부의 2022년 전국대학교 개황 데이터와 각 학교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냈다.

51.22%의 대학에 들지 못한 우리 학교의 위치는 어떨까? 우리 대학과 열람실 이용 시간이 같은 대학은 단 두 곳뿐이다. 24시간이 아닌 대학은 우리 학교보다 1~3시간 일찍 열고 1~2시간 늦게 닫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학우에 출판한 총학생회 라온의 공약 교육 부문에 ‘열람실 개방 시간 확대요구’가 있다. 라온은 공약집을 통해 “열람실 개방 시간을 확대하여 학우들의 더 나은 학습 환경 조성하겠습니다.”라며 연장의지를 밝혔다.

앞으로의 열람실 계획
우리 학교 열람실이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안전이다. 학술정보원 정보 봉사팀 김기동 팀장은 “최근 외부인으로 의심되는 인원이 출입해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도 있었

다”며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임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야심찬 시간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즉, 퇴근 후 손찰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도서관은 3월 20일(월)에 개관식이 예정되어 있다. 새로운 도서관에서 열람실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고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간접하게 원하는 것이 열람실 24시간 개방이기에 저희도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4시간 열람을 위한 방법

24시간 열람을 하는 대학 세 곳에 문의하여 어떻게 안전을 확인하고 24시간 개방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서울시립대는 도서관에 상주하는 경비원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정 좌석제로 발권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경희대학교는 도서관에 24시간 상주하는 경비 인력이 있다. 한편 성신여자대학교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로는 2022년 9월부터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다. 여대다 보니 안전상 문제를 신경 써서 밤 11시 반부터 오전 5시까지의 출입이 통제된다.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경비 선생님께서 잔류인원을 확인하고 문을 닫고 있다.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인적 사항 적고 나가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람실 운영시간을 바꾸려면 학우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열람실을 2018년부터 사용하다 작



현재 사용하는 천마제2열람실의 모습이다.

년에 다시 이용하기 시작한 한 학우는 시험 기간이 아닌 경우 10명 이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학우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로 사용하고 있다. 작년 시험 기간 동안 24시까지 운영했던 당시 경비원은 “24시로 연장했으니 2~3명 정도 밖에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기동 팀장은 “우선 24시간 개방을 위한 첫걸음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통계를 보면 시험 기간에는 이용자가 많지만, 그 외 기간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3월 20일부터 운영 예정인 새로운 열람실은 이전보다 폐쇄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학생들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용자가 현재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다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열람실 이용 시간 연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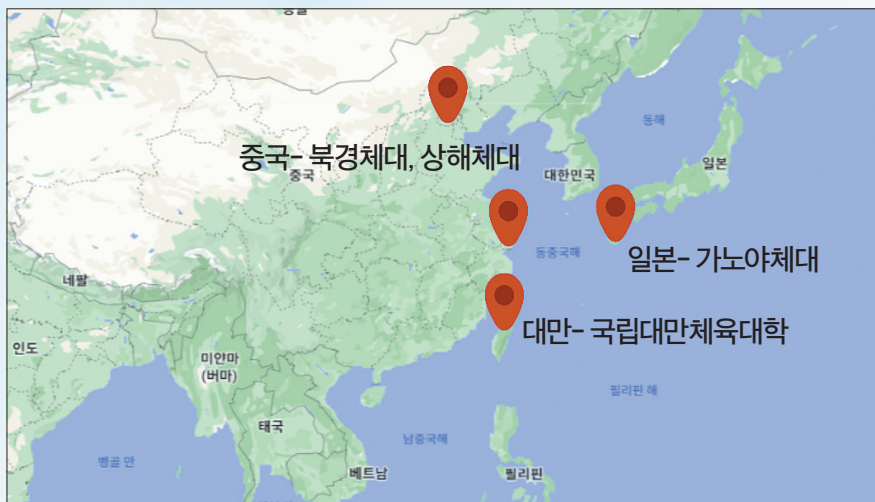
새로운 변화와 기대

새로운 건물의 열람실은 5층이다. 새로

운 열람실은 대략 90여 명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열람실과 달리 총 14개 테이블이 포커스 룸으로 구석에 배치되어 있으며 완전히 개별 좌석이 있다. 기존 열람실에 총 4개의 콘센트가 있었지만 새로운 열람실은 테이블마다 콘센트가 있다. 8층은 북카페로, 스터디와 여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120명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정혜송 학우가 학교에 바라는 점이다. “학교에서 공부할 공간과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는 적어도 시험 기간에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교들은 등록금만 내면 공부할 기회도 주고 학교를 즐길 기회도 주고 공부할 공간을 마련해 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등록금을 내고 추가로 공부하려면 스터디 카페 요금을 따로 내야 하는 거죠. 학교에 등록금 내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습할 공간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가면 다 교화 학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대학정보시스템사이트 최신 2021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22개국 45개교와 외국대학 자매결연이 맺어있으며 실제 3년동안 교류가 있는 학교는 아시아 대학 4곳에 불과하다.

보낸 학교는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 한 곳 뿐이었다.

MOU 체결의 의미는?

지난 1월 18일에 ‘무예신문’에서 안용규 총장이 MOU 체결에 대해 인터뷰한 기사가 올라왔다. 안용규 총장은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기회 확보를 위해 해외 15국, 21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외국인 코칭 연수와 해외 전지훈련의 장을 마련했다. 대학에서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보다 적은 수의 파견 인원을 보낸 대학은 단 세 곳뿐이었다. 2020년의 경우 한국체육대학교는 2명의 파견 인원을, 2021년의 경우 0명의 파견 인원을 보냈다. 코로나 시기에 다른 학교도 해외 교류가 줄어들 수 추측했다. 그러나 각 연도에 한국체육대학교보다 적게

협의를 통해서 교류할 기반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죠. MOU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시작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그 대학과 우리 대학의 관계를 옹호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교류 프로그램 시작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라고 전했다.

해외 교류프로그램 계획은?

최하연 주무관은 이번 연도 해외 교류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해외 교류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임을 알렸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해 묻자 내년엔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최 주무관은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1년 파견이라 보통 1월부터 선발해야 내년도 2, 3월에 파견이 가능해요. 올 하반기 때 선발해서 내년엔 파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쪽은 아직 올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대만과 일본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요.”라고 밝혔다. 이어서 “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은 1학기 여름방학에 오픈할지 학기 중에 논의할 예정입니다.”고 전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2학기가 되면 정확한 계획이나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봉주원 학우가 본인이 졸업한 후라도 후배들을 위한 해외 교류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학교가 지원하는 해외 프로그램들을 다녀온 경험자로서 확실하게 견문을 넓힐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해외는 날씨나 언어가 다른 것뿐 아니라 학교 시스템, 식당, 공공장

소나 걷는 방향, 대중교통 사용 등 다 달라요. 그런 다른 점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저는 마냥 여행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표하거나 자원봉사 기관을 둘러보는 활동같이 의미 있는 활동을 했잖아요. 이걸 개인이 하기 어려울 경험이었거든요. 학교에서 해외 교류프로그램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항공, 숙박 지원을 해줘서 학생 신분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교류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교내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2023년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의 로망은 뭘까? 송승은 학우(스포츠산업 23)의 로망은 다양한 교내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만우절에 학교 내에서 교복 입고 술을 마 시거나 구기대회를 나가고 싶다.”고 밝히며 이벤트 중에 축제의 장이 자랄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로망에 대해 “수능이 끝나도 놀 수 없는 예체능 대학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로망이 컸어요. 그때 참고 덜 놀았던 걸 충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내 이벤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

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로망을 이번 총학생회 라온이 실현해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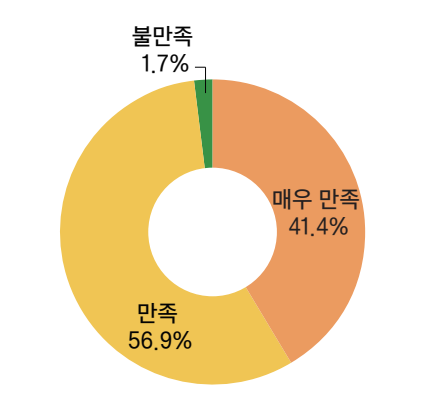
위드유의 높은 만족도 속에서 출발하는 라온

작년 44대 총학생회 With:U(이하 위드유)는 학생 복지와 권리, 자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칭찬을 받으며 한 해를 마쳤다. 위드유는 축제 진행으로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기도 했다.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재미있는 축제를 진행한 총학생회에 감사를 표하는 글

은 84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에타가 다른 학교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학교 에타에서 84개 ‘좋아요’를 받은 건 흔치 않다. 실제 위드유는 한국체육대학교 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2022 천마 축제 피드백 설문조사서 2022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니 올림픽 체육대회, 체대네트 포토 버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던 축제는 성공리라고 밝혔다. 축제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만족이 71.8%, 만족이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는 WE:PL 축구대회를 열었다.

이번 총학생회 라온은 어떻게 학우들을 만족시킬까? 이번 총학생회 이벤트 기획력을 신입생 OT에서 엿볼 수 있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한 새로운 신입생 OT는 동아리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캠프

2부 캠프 투어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라온 총학생회에서는 주관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신입생 OT 만족도 조사로 신입생 58명이 응답했다.

퍼스투어를 진행했다. 김지성 사업기획국(운동건강관리 21)에 따르면, 신입생 OT 학교 예대에서 84개 ‘좋아요’를 받은 건 흔치 않다. 실제 중앙동아리와 협업한 캠퍼스 투어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41.4%, 만족이 56.9%, 불만족이 1.7%가 나왔다.

준비된 라온과 이벤트

45대 총학생회 라온은 공약으로 교내 문화 교류 프로젝트와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약속했다. 라온에게 현재 계획 중에는 이벤트에 관해 물었다. 김경준 체육문화국장(스포츠산업 21)은 “현재 문화교류 사업과 체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총목으로 테니스가 선정되어서 엘리트(ALLEY, 테니스 동아리)의 양해를 구해서 화요일 28일에 교내 문화교류 연도:멘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교의 문화 교육 사업으로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1학기 사회봉사1을 신청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채우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봉사활동 단체와 접촉해서 화당 4시간의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논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체육 사업으로는 축구대회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축구대회 결승은 5월에 체육대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고 학우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하프타임 이벤트와 승부 예측 이벤트를 기획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축제를 기획하는 김지성 사업기획국장은 “신입생 OT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피드백과 기존 축제에 했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

의 기획 틀을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라고 전했다. 추가로 김지성 사업기획국장은 송승은 학우의 만우절 이벤트 로망에 대해 “술을 제외한다면 축제에서 만우절 이벤트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학식으로 술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만우절 장난 정도라면 그런 형식의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송승은 학우의 로망이 실현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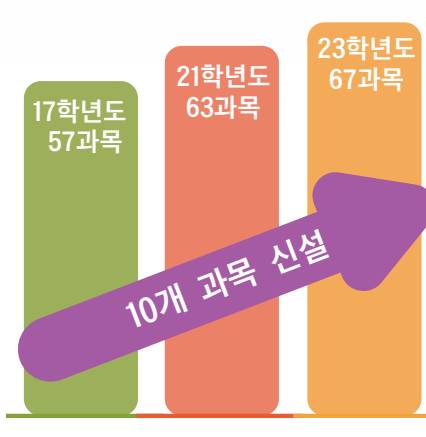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위해 필요한 것

라온이 진행하려는 교내의 교류 프로젝트와 축제 모두 학우의 참여가 바탕이 되는 이벤트다. 김경준 체육문화국장은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우들의 참여입니다. 많은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번 1학기 때 진행한 수요조사의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다음 수요조사와 2학기에 진행할 수요조사에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며 학우들의 적극적인 수요조사 참여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가 어떤 마음가짐과 목표표를 가지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지성 사업기획국장은 “총학생회라는 단체가 모든 학생을 대면해서 이끌어가는 조직이잖아요. 결국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본교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에게 많은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벤트의 목표는 방향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여러가지를 배우고 즐기는 게 포망입니다.”

22학번은 비대면 수업 시기에 신입생으로 들어와 대면을 즐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가 되었다. 올해 2학년 선배가 된 이유민(사회체육 22)을 만나 로망에 대해 인터뷰했다. 그는 “입학할 때는 대학에서 사람들 만나느 것 자체가 로망이었어요. 대학교는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었어요. 좋아하는 분야를 나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대학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걸 즐기는 게 로망입니다. 특히 교양 수업에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아요.”라고 본인의 로망을 얘기했다. 이어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다양한 분야 수업이 열려있지 않아요. 원하는 교양 수업은 제한 인원 안에 들어가 어렵고요.”라고 교양 수업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다양한 교양 수업을 듣고 싶은 이유민 학우의 로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교양교육과정부 성보세 조교와 인터뷰했다.



우리 학교 교양과목은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체육종합대학이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종합대학치고 교양 수업 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대학교 2022학년도 교육과정 교양과목 수는 180개가 넘고 홍익대학교 2023학년도 교육과정 교양선택 과목 수는 130개가 넘는다. 어디서 차이점이 나오는 걸까? 교육교직과 정부 성보세 조교는 “우리가 종합대학이기는 하지만 체육종합대학이잖아요. 다른 종합대학은 학교 안에 법대도 있고 체대도 있고 미대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교수님들이 전공 수업도 하면서 다른 학과 학생들을 위한 기초 교양도 맡을 수 있는 거죠. 반면 우리 학교는 교양교직과정부 안에 소속된 교

수님들 전공에서 우선 해결해야 해요.”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체육대학교는 체육종합대학이다. 그래서 우리 대학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체육 분야가 대부분이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도움을 주는 게 교양 수업이다. 우리 학교가 체육종합대학이기에 이유민 학우는 다양하게 교양 수업을 듣고 싶다. “제가 사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듣고 싶어요. 수업을 듣고 많이 배우는 게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진행하는데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성 조교는 “설문 참여율이 너무 떨어져요. 설문조사에 참여 인원이 10%가 안 돼요.”라며 교양교직과정부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의 낮은 참여율에 아쉬움을 전했다. 성 조교는 “교양교직과정부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학생들이 원하는 개설과목 논의가 원활해질 수 있어요.”라며 변화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길 요청했다.

교양과목 다양화 계획은?

이유민 학우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성 조교는 “지나치게 다양화 될 미래 사회에 대비 측면에서 4개 과목을 새로이 개설했다”고 말하며 개편 사실을 밝혔다. 이어 “기존 과목을 더 수를 늘려서 대 과목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한 강좌가 9개 개설된다면 이를 나눠 기존 강좌를 5개 열고 나머지 4개로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으로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고민 결과 이러한 개편이 일어났다. 장담할 순 없지만 25학년도 개편 때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끝으로 성 조교는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설문조사를



기자 생각

이상과 현실 그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학교로 갈 수 있을까? 학생이 바라는 학교와 현재 학교의 모습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상향과 현실은 언제나 차이가 난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 고민 없이는 학생이 바라는 학교와 현재 학교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린다. 학생이 떠나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관련 담당자와 만나 인터뷰하고 느낀 점은 모두가 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타까웠다. 그 노력이 학생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 반가운 사실은 누구도 “이게 최선이다”라고 하진 않았다.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도 더욱 노력하고자 했다. 점차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좁혀져 나 가길 바란다.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변화를 바란다면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관련 시설을 자주 이용하자. 학생이 행동을 보이면 주장의 실득력이 높아진다. 기지도 학교가 변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보이자.

기자의 사촌 동생은 3년 후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그는 체대를 희망하고 있다. 기자는 그에게 반갑게 한국체육대학교를 추천하지 못했다. 우리 학교가 사촌 동생에게 입학 추천하는 학교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박서진 수습기자 psj3158gh@naver.com